

암에 관한 상식 문답

【문】 우리나라는 암(癌)의 사망율이 높은 나라인가.

【답】 그렇다. 사망율(死亡率)이라 함은 어느 인구중에서 1년간 어느 정도의 사람이 죽는가하는 비율을 말한다. 보통 말하고 있는 사망율이란 인구 1,000명에 대한 숫자를 말하며 사인별사망율(死因別死亡率)은 인구 100,000명에 대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사망율에서 연령층의 남녀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어느 집단의 인구에 표준적인 인구 구성이 있다면 사망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정정사망율(訂正死亡率)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암의 사망율은 미국, 일본, 스웨덴등에서 사인별사망율의 2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3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사망율이 높은 편이다.

【문】 암중에서 남자는 위암(胃癌) 여자는 자궁암(子宮癌)이 가장 많은가.

【답】 아니다. 여자도 가장 많은 것이 위암이며 그 다음이 자궁암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자궁암, 위암, 응모상피암, 유암의 순서라는 통계도 있다).

【문】 최근에는 폐암(肺癌)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인가.

【답】 그렇다. 암의 원인에 대하여 아직 아는바 없으나 암의 종류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함께 폐암, 위장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폐암증가가 현저하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암으로 백혈병이 있고 남자에게는 전립선암(前立腺癌), 여자에게는 난소암(卵巢癌)이 상승경향에 있다.

【문】 미국에서는 위암(胃癌)의 발생이 해마다 줄어 들고 있다.

【답】 그렇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위암사망율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심한 것이 미국백인의 경우인데 최근 20년간 반감(半減)하고 말았다. 미국 백인남자의 암순위는 ①폐암, ②장암, ③전립선암, ④위암이다. 여자는 ①유암, ②장암, ③자궁암, ④난소암, ⑤폐암, ⑥위암의 순서이다.

【문】 국민학교, 중학교학생이 가장 생명을 잃기 쉬운 질병이 암(癌)인가.

【답】 그렇다. 국민학교나 중학교학생의 사망원인중 가장 많은 것은 불의의 사고이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는 질병이 아니므로 질병만으로 볼때 가장 많은 것은 암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피의 암이라 할 수 있는 백혈병이 가장 많고 그다음 어른들에게는 적은 신장, 부신, 눈의 암, 임파육종이나 골육종(骨肉腫) 등 특수한 형태의 암이 많다.

【문】 암이 처음 시작될 때는 자각증상이 없는데.

【답】 그렇다. 암(癌)이 무서운 최대의 원인은 초기에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다. 이때문에 손쓰기가 늦어 생명을 잃고 마는 것이다. 위암의 경우에도 수술로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조기암단계에서는 아무런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얼마간의 자각증상이 주의깊게 발견되어 생명

을 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러므로 조기진단과 조기검사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경우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문】위궤양이나 12지장궤양은 앞으로 암으로 되기 쉬운가.

【답】아니다. 위궤양은 위암의 전 단계로서 주목받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위궤양이 위암으로 된 예는 실제에 있어서 매우 드문 현상이 밝혀졌다. 따라서 위궤양이 생겼더라도 암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12지장이라는 곳에서는 거의 암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2지장궤양도 암과는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다.

【문】조그맣고 초기인 위암이면 제암제(制癌劑)로 고칠 수 있다는데.

【답】아니다. 암을 고친다는 약에 대한 연구는 현재 연구과정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암에 대한 특효약이란 유감스럽게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다. 암을 완전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조기발견된 암을 수술로 끊어 내는 것 뿐이다. 단지 제암제(制癌劑)나 방사선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수술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수술후 재발위험을 감소한다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초기 위암이라도 수술하지 않고 완치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수술하지 않고 고쳤다는 위암은 사실, 위암이 아닌 것이었을 뿐이다.

【문】유암은 자기가 유방을 흔들어 보아도 조기발견할 수가 없나.

【답】아니다. 자기 진단으로 충분히 조기발견할 수 있는 것이 유암이다. 유암도 암 특유의 성질을 가져 발생해도 아프지가 않다. 그러므로 유방속에 아프지 않은 멍우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매회의 월경이 끝난 뒤에 유방이 부드러운 시기에 유방을, 만져 보면 조그만 멍우리를 손가락으로 느낄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발견된 유암은 수술로 완치할 수가 있다.

[문] 우유를 많이 먹으면 위암이 예방되는가.

[답] 우유를 많이 먹고 있는 집단과 먹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보면 우유를 먹고 있는 집단쪽이 위암사망율이 낮다. 그러므로 우유를 많이 마신다는 것이 위암감소에 관계가 있다.

그러나 특정개인에 대하여 위암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는 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유를 먹고 있으면 위암이 예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답은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문] 유암은 여성쪽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남성에게도 생긴다는데 사실인가.

[답] 그렇다. 자궁암이나 난소암은 남자에게 없는 장기이므로 완전히 여성만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방은 퇴화기관이지만 남성에게도 있으므로 결코 여성쪽에만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남성쪽에도 생길 수 있다.

보통 여성 유암 100에 대하여 남성은 1 정도이고 그 사망율은 남성 300만명에 1명정도이므로 유암은 여성의 것으로 생각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건강 상식>

암 퇴치 최선의 방법은 조기발견

최근 세계 의학계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단계로서는 암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하는 길만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암치료는 크게 ①수술요법 ②방사선요법 ③화학요법을 들수있지만 요즘은 암을 면역학적으로 치료하는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암요법은 한가지 요법보다 수술요법을 중심으로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을 함께 조합해서 치료하는 병합요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국사람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자궁암과 위암의 조기검진방법은 정부와 의학계

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하며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뿐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개업의사를 까지도 이 사업에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암조기 검진사업은 정부에서 많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돈많은 재벌들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암연구비와 무료검진 사업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캐나다」의 20~60세 국민들 가운데 약50%가 암검진을 무료로 받을수 있을뿐 아니라 많은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귀한 생명을 수없이 건져 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재벌들이나 민간단체로부터의 암연구비와 암 무료검진 사업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아쉽다고 말할 수 있다.